

핀란드와 우유 모의원내의 우유

이 단락을
공유하고 싶다면
for long@johngoo.com

지난 6월 경북도의원 12명이 유럽 등 5개국으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의원들에게는 도 예산에서 1인당 7백20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고 한다. 연수 일정엔 헬싱키의 시벨리우스공원 방문도 들어있었다. 공원은 이름 그대로 핀란드가 낳은 최고의 작곡가인 시벨리우스(1865~1957)를 기념해 조성했다. 공원 안에는 1967년 24톤의 강철관으로 조형한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의 얼굴상이 있다(사진).

시벨리우스는 1899년 그의 대표적인 교향시 핀란드아(finlandia)를 지었다. 투오넬라의 백조(1893~1895) 등 일련의 민족적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곡 역시 아름다우면서도 준엄한 조국의 자연을 노래했다.

발표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시벨리우스는 작곡한 이듬해 이 곡을 처음 연주했는데, 그때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압제에 시달리던 국민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했다. 러시아 정부는 민중에게 조국애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한때 공연을 금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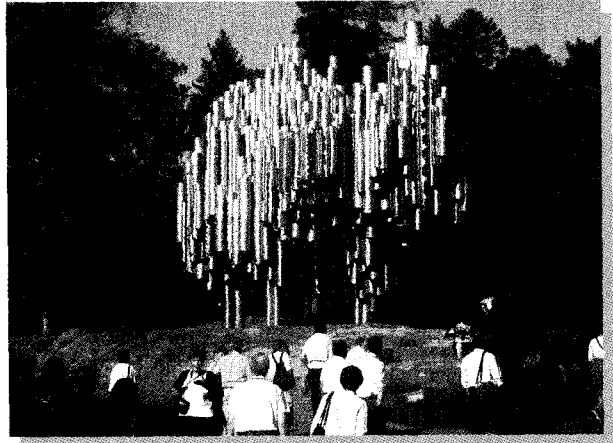
그러나 그때 지퍼진 애국심의 불길은 타올라 핀란드아의 완성을 이뤄냈다. 제1차 세계대전 와중이던 1918년 독립을 쟁취해 공화국을 출범시킨 것이다. 1백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핀란드 국민의 정신 속엔 핀란디아가 애국심의 표상으로 새겨져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으며 국민은 주로 핀족과 스웨덴인으로 구성된다. 면적은 33만8천km²(한반도의 1.52배), 인구는 5백20만 명이다. 국토 안에 4만 여개의 호수가 분포해 핀란드어로는 수오미(Suomi·호수의 나라)라고 칭한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가문비나무 등 울창한 삼림도 귀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틈에 끼여 역사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13세기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09년에 러시아에게 국토를 점령당했다.

러시아는 퍼 1835년에 핀란드 의회의 입법권을 정지시켰다. 1902년에는 핀란드 군을 러시아군에 편입시키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하는 등 러시아화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맞서 핀란드 국민의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때 핀란디아가 만들어진 것이다. 독립은 했지만 그 이후로도 러시아와의 마찰이 이어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1944년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해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다.



전후 핀란드의 과제는 러시아와의 평화 유지와 손해배상·경제부흥의 세가지에 집중됐다. 1952년에는 제15회 올림픽을 헬싱키에서 개최할 만큼 국력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1인당 국민총생산 2만6천2백달러(2002년 현재)의 국가경쟁력지수 으뜸인 나라로 우뚝 선 것이다.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세계 최저(0.4%)이며, 남녀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나라이기도 하다. 사우나와 산타클로스의 나라로도 유명하다. 핀란드와 우리 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식민지배를 받은 점이 닮았다. 실질적으로 독립한 시기도 비슷하다.

시차는 있지만 올림픽을 치렀고, 노키아로 대표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상위의 정보통신 강국이란 점도 닮았다. 우리처럼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 문맹률도 아주 낮다. 국토의 75%(우리나라는 65%)가 삼림이어서 임산 자원이 경제의 바탕이지만 과학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핀란드엔 부패나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1백2개 나라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40위였다.

핀란드에는 택시를 타도 호텔 서빙을 받을 때도 팁이 없고 바가지도 없다. 더구나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없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호객 행위가 없다.

지난 9월 6일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을 보고 지갑에 든 현찰을 도둑맞을까봐 귀중품 보관함을 찾던 내 입이 부끄러웠다.

도의원들은 아마 시벨리우스의 조국애나 핀란드 국민의 청렴한 정신을 배우러 나갔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7백20만원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다. PPFK